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의 특성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Cape Design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Fashion

Sun 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1년 10월 19일), 수정일(1차 : 2011년 11월 10일, 완료일 : 2011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2011년 12월 9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ve changes and trends of cape design in modern fashion. In this study, a total of 496 cape designs were collected through the four major fashion collections of Paris, Milan, New York, and London from 2006S/S to 2010F/W, and a literature overview on cape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ases with collars and hoods attached outnumbered the non-collared designs. In addition, the cases of lengthy cape in the hip or knee line represent more portions in designs. As to the material, it indicated that generic cloth was used the most. In most cases, decorations with various details and trimmings were also used. For expression characteristics, cases only with unique texture to cloth material and formative beauty were the most remarkable without decoration. For the formative feature, the independent item style was found the most, even though it was worn together with other kinds of clothing. Integration with other types also appeared such as cape jacket, cape dress, cape one-piece, or cape coat. Cape design features in contemporary fashion and could be characterized as feministic elegance, harmony of practical value and fashion, authoritativeness, and decorativeness from the design trend analysis.

Key words: Cape, Contemporary fashion; 케이프, 현대패션

I. 서 론

케이프(Cape)란 소매가 없이 어깨와 팔을 덮어 헐렁하게 드리워지도록 입으며, 다양한 길이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코트의 일종으로 착장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케이프는 복식사에 등장하는 맨틀(Mantle)이나 망토(Manteau)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복식양식과 조화를 이루며 표현되었고, 보온이라는 실용적인 가치와 함께 부가적인 장식적 아이템으로서 남성과 여성 패션 모두에게서 외부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 케이프는 남녀

노소에게 두루 입혀지며 단순히 방한용이나 장식적인 아이템인 동시에 독특한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단독 또는 다른 의복의 아이템과 결합되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케이프는 다양한 길이와 소재, 장식을 통해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내게 되며 케이프칼라, 케이프소매 등과 같은 의복구성의 일부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최근 패션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케이프는 에스닉 패턴의 니트 망토나 타탄체크 패턴의 브리티시 망토 스타일을 벗어나 간결한 디자인과 커팅,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재킷이나 코트, 원피스 등 다른 의복의 아이템과 결합되어 독특한 형태미를 나타내기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y6341@sunchon.ac.kr

도 하고, 연출형태에 따라 개성적인 패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복식사 측면이나 현대패션과 관련하여 전무한 상태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의 형태적 변화와 경향을 살펴보고, 케이프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케이프디자인의 발상전개와 함께 독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자료를 통하여 케이프의 정의와 변천과정에 관해 고찰하고, 케이프디자인의 경향과 특성고찰을 위해 2006S/S부터 2010F/W까지 최근 5년 동안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 총 496점을 분석하였다. 작품선정에 있어 케이프 단독으로 연출된 것뿐만 아니라 케이프코트, 케이프재킷, 케이프드레스 등 다른 의복아이템과 결합되어 케이프의 형태로 연출된 형태까지 포함하였고, 사진자료는 인터넷 패션사이트인 스타일닷컴(www.style.com)을 이용하였다.

II. 케이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케이프의 개념

케이프의 어원은 포르투갈어의 카파(Capa)에서 유래한 것으로(Chung, 1997), Fashion dictionary editorial committee(1999)에 의하면 ‘소매가 없이 어깨와 팔을 덮어 헐렁하게 드리워지도록 입으며, 팔이 나올 수 있게 터짐이 있고 다양한 길이에 대개 앞여밈으로 된 전통적인 코트의 일종이다. 덧불은 자락은 보온이나 패션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중세에는 케이프를 거의 맨틀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케이프와 유사한 개념인 망토는 ‘16세기와 18세기에 남녀가 어깨 위에 걸쳐 착용한 코트로, 프랑스어로 원래 소매가 없고 여유 있는 외투의 총칭이며, 길이는 바닥까지 오는 것에서부터 어깨를 덮을 정도의 것까지 있다. 영어로는 케이프, 클로크(Cloak), 맨틀에 해당한다.’(Fashion dictionary editorial committee, 1999)라고 되어 있다. 또 케이플릿(Capelet)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작은 칼라가 달린 코트로 드레스나 슈트 위에 착용하는 작은 케이프종류를 총칭한다. 방한을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장식적으로 어깨를 덮는 작은 케이프를 말하는데, 16세기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였던 어깨에 걸치

는 케이프로 티핏(Tippet)이라고도 한다(Rasara educational development, 1992).

Tortora and Eubank(1995)에 의하면 중세 이후 복식 명칭에 있어 상류층의 망토를 맨틀(Mantle)로, 후드 달린 망토를 케이프(Cape)로, 짧은 케이프를 샤프롱(Chaperon)으로 구분하였으나, 샤프롱의 경우 오늘날 더 이상의 복용어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Chung(1997)은 망토는 두르개의 일종이며 맨틀이나 케이프로도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케이프는 망토, 맨틀과 유사한 개념으로 소매가 없는 방한용 외투를 총칭하며, 케이프를 코트나 재킷에 부착시킨 케이프코트, 케이프재킷도 있다. 후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망토와 구별될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 구분도 불명확하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프를 후드가 달린 디자인을 포함하여 소매가 없는 외투의 개념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케이프의 변천

앞서 고찰한 케이프의 개념에 근거하여 복식사에 나타난 맨틀과 망토, 케이프를 통해 그 변천과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 초기에 추위를 막기 위해 울소재의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또는 반원형의 망토를 걸쳤는데 망토의 단부분에는 수를 놓은 트리밍을 대거나 전체에 수를 놓기도 하였다. 중세 중기에 이르러 고대부터 입어온 팔리움(Pallium)이나 클라미스(Chlamys), 팔루다멘툼(Paludamentum)은 맨틀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그 형태는 초기와 같이 직사각형, 반원형, 타원형이 있었다. 남성이 착용한 맨틀은 11세기경까지는 무릎길이의 것이 많았으며, 착용방법은 몸에 한번 두르고 오른쪽 어깨나 가슴에서 브로치로 고정시키거나 끈으로 매어 착용하였다. 여성의 경우 반원형과 직사각형의 것이 대부분으로 머리까지 쓰기도 하였다(Shin, 2006). 그러나 중세 말기에 이르러 맨틀의 중요성이 감소했지만 난방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써 사라지지 않고 안쪽에 털을 대어 여행 시 착용하거나, 장식적인 측면, 그리고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왕의 면전 시 착용하기도 했다(Kim et al., 2010).

르네상스시대에 남성 외투로서 착용된 짧은 망토 혹은 케이프는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식으로 만들어 지기도 하였고, 소매나 후드의 유무, 그리고 다양한 길이와 색상 등으로 나타났다. 또 스페인 여성들의 경우 케이프를 실내와 실외 모두 착용했는데, 결혼 여부에

따라 길이가 달랐으며 부유한 여성들의 경우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레이스로 된 아주 작은 망토, 즉 케이프를 착용하기도(Kim et al., 2010) 하여 케이프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크시대 남성용 케이프는 둘러 입는 외투의 일종으로 승마나 여행을 할 때 주로 입었으며, 짧은 케이프형의 외투나 발목 길이의 긴 맨틀형태로 나타났고, 길이는 옷을 입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무릎 길이에서 발목 길이까지 다양한 변화를 나타냈다(Anderson & Madge, 1980/1997). 프랑스 남성들의 경우 케이프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치고 끈으로 고정시켜 입기도 했고, 귀족들은 화려한 실크로 안을 대고 가장자리에는 모피로 장식한 호화로운 것을 착용하였으며, 왕들의 의식용 망토는 긴 길이와 함께 화려한 장식으로 사치스러운 위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여성 외투로는 케이프형의 맨틸라(Mantilla)가 있는데, 그 길이가 짧고 원형으로 재단되어 있으며 후드가 달린 것도 있다(Chung, 1997).

로코코시대 남성용 케이프는 길고 풍성한 외의인 망토로 여러 겹 칼라를 단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여성복에 있어 18세기 전기에는 확대된 가운의 실루엣에 어울리는 외투의 개발이 거의 없었고, 1750년대 이후 보온을 위해 겨울철에 맨틀이나 케이프형의 외투를 착용하였는데, 케이프형태의 외투는 허리선에서 엉덩이 길이나 종아리 길이에 이르러까지 길이가 다양하였고 털로 가장자리를 두르거나 안을 넣은 것이 일반적이었다(Shin, 2006). 또 로코코시대 후반에 유행한 펠리스(Pellise)는 케이프형의 외투로 진동돌레 아래쪽에 수직으로 트인 슬릿을 통해 손을 내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펠레린(Pelerine) 역시 손을 뺄 수 있는 슬릿과 함께 후드가 달린 망토 스타일로 다양한 길이의 디자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엠파이어시대 케이프는 남성복에 어깨를 덮는 케이프가 3~5장 달린 방한용 외투인 캐릭(Carrick), 즉 그레이트 코트(Great Coat)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여성복의 경우 긴 소매와 케이프칼라가 달린 발목 길이의 레드링고트(Redingote)로 나타났고, 낭만주의시대 역시 길이가 길고 풍성한 코트, 케이프가 달린 코트 등 다양한 형태의 코트와 망토가 유행하였다.

19세기 로맨틱시대에 이르러 남성복의 케이프는 케이프가 달린 인버네스 코트(Inverness Coat)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여성복의 경우 확대된 소매형태로 인하여 몸에 꼭 맞는 외투 대신 솔과 케이프를 착용하게 되었

고, 크리놀린시대에 이르러서는 솔과 함께 어깨와 팔을 싸고 헐까지 내려오는 망토도 병행하여 애용되었다. 망토는 1830년대에 이미 작은 형이 유행하였는데, 이 시대에 와서 스커트 길이와 폭이 커짐에 따라 망토의 길이와 폭이 커졌고 이러한 형태로 20세기 초까지 유행하였다. 또 1840년경에는 후드가 달린 망토형태의 외투로 화려한 태슬과 자수로 장식한 뷔르누(Burnous)라는 아라비아식 외투가 유행하기도 하였으며(Chung, 1997), 19세기 말에 이르러 케이프는 여성의 외투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후드가 달린 케이프코트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아우어글라스드레스의 커다란 소매로 인하여 어깨에 높은 퍼프가 있는 케이프가 많이 착용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0).

이와 같이 복식사를 통해 나타난 케이프는 보온이라는 실용적인 목적과 장식적인 측면, 그리고 왕실이나 귀족 신분에 대한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외투의 개념을 중심으로 변천되어 오면서 다양한 장식과 길이, 형태로 나타났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의 특성

1.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의 경향

남녀노소 모두에게 추위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인 동시에 패션성을 연출할 수 있는 케이프는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디자인과 연출방법으로 착용되어 착용자의 미적 감각과 독특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앞장에서 복식사적 고찰을 통해 케이프디자인은 형태, 길이, 소재, 장식 등에 변화를 보이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케이프의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복식사적 고찰을 토대로 2006S/S부터 2010F/W까지 최근 5년 동안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 총 496점을 분석하였다. 작품선정에 있어 여성복에 한정하였으며, 케이프 단독으로 연출된 것뿐만 아니라 케이프코트, 케이프재킷, 케이프드레스 등 다른 의복아이템과 결합되어 케이프의 형태로 연출된 것까지 포함하였다.

케이프디자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6F/W에 다양한 작품이 발표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2009F/W와 2010F/W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

Table 1. Diachronic changes in cape design

Period	Characteristics of Cape Designs
Medieval 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n for practical or decorative purposes. - A symbol of prestige and dignity. - Square, rectangular, circular, semicircular and oval shapes. - Knee-length capes, mostly made of wool.
Renaiss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n for practical or decorative purposes. - Men's capes changed from short in the early years to hip length in later years. - Capes with sleeves appeared first. - Women's capes varied in length and their materials, length and shapes represented the social status of wearers. - Many were lacy woolen capes.
Baro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n for practical or decorative purposes. - Designed to show dignity or luxury. - Varied from short to long. - Lacy and/or embroidered capes made of fur, wool or velvet.
Roco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n for practical or decorative purposes. - Varied from waist-length to longer. - Made of satin, velvet or wool and trimmed with fur. - Slit details.
19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n for practical or decorative purposes. - Combined with diverse types of coats. - Varied from short to long. - Made of fur, wool, velvet or lacy fabric and tasseled or embroidered.

으며, 특정 디자이너가 아닌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여지고 있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을 연도 및 시즌별로 칼라의 유무, 길이, 소재, 장식, 형태 등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1) 칼라와 길이

케이프디자인에 있어 후드가 달린 짧은 망토를 케이프로 구분하여 칭하기도 하나 오늘날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복식사를 통한 변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망토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에 있어 칼라가 없는 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칼라가 있는 경우, 후드가 달린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드가 달린 경우를 포함한다면 칼라가 달린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로 칼라디자인을 살펴보면 매해 칼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10F/W에는 칼라가 달린 경우가 현저하게 높아진 점이 주목되었다.

칼라는 목부분에 달리기 때문에 의복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케이프에 스탠드칼라, 테일러칼라, 플랫칼라, 솔칼라 등 다양한 칼라를 부착하거나 리본으로 여밈 처리하여 리본칼라와 같은 형태로도 나타났다. 또 <Fig. 1>과 같이 높은 터틀넥칼라로 처리하거나, <Fig. 2>와 같이 칼라부분에만 모피

를 덧대어 장식적이면서도 보온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경우도 나타났다.

케이프길이는 힙선 길이가 가장 많았으며, 무릎선 길이, 허리선 길이, 가슴선 길이, 바닥까지 이르는 긴 길이, 앞뒤 길이 차이가 있거나 비대칭인 경우, 어깨선 높이의 짧은 길이의 순으로 다양한 길이를 나타냈다. 케이프길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케이프가 지니는 외투의 개념이 내재되어 힙선 길이나 무릎선 길이의 형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길이에 있어 2006년에는 가슴선이나 허리선 길이의 짧은 케이프가 다수 발표된 반면 점점 힙이나 무릎선 길이의 긴 길이로 변화되고 있었으며 2010년에는 힙이나 무릎선, 그리고 바닥에 끝릴 정도의 긴 케이프가 다수 발표되어 차이를 나타냈다.

<Fig. 3>과 같이 어깨선 길이의 짧은 케이프의 경우 장식적인 측면이 고려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Fig. 4>와 같이 앞뒤좌우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커팅 된 경우보다 역동적인 울동미를 나타냈다. 또 앞뒤 길이 차에 의해 뒷부분이 긴 경우보다 안정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2) 소재와 장식

케이프소재는 모직, 모피, 벨벳과 같은 보온성 소재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소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

Table 2. Cape design analysis by a design element in contemporary fashion

Division		'06 S/S	'06 F/W	'07 S/S	'07 F/W	'08 S/S	'08 F/W	'09 S/S	'09 F/W	'10 S/S	'10 F/W	Total
Frequency		19	89	10	30	31	43	27	57	24	166	496
Collar	Without collar	13	53	7	18	21	32	21	13	23	40	241
	With collar	4	32	3	12	6	6	3	40	1	112	219
	With hood	2	4	0	0	4	5	3	4	0	14	36
Material	General woven	14	44	7	22	21	23	21	40	21	129	342
	Leather, Suede	0	3	0	1	1	1	0	0	0	7	13
	Fur, Feather	0	17	0	1	0	9	1	9	1	18	56
	Knit	0	21	0	5	1	9	1	5	0	11	53
	Lace, See through	5	4	3	1	8	1	4	3	2	1	32
Decoration	No decoration	11	53	8	26	21	40	19	49	17	129	373
	Print, Knitting	2	2	1	2	3	2	4	1	2	4	23
	Embroidery, Beading	2	4	0	1	0	1	0	2	0	9	19
	Pleats, Ruffle, Fringe, Drape	3	8	0	0	5	0	3	4	1	10	34
	Patchwork, Braid, Collage, Quilting	1	22	1	1	2	0	1	1	4	14	47
Length	Shoulder line	2	0	0	0	0	2	0	1	0	1	6
	Bust line	0	14	0	0	4	4	5	7	4	4	42
	Waist line	4	26	3	4	6	8	5	7	4	12	79
	Hip line	4	16	2	16	11	10	8	13	2	75	157
	Knee line	6	24	2	6	6	13	6	23	9	56	151
	Long lengths	1	5	2	2	3	4	0	2	0	15	34
	Asymmetrical length	2	4	1	2	1	2	3	4	5	3	27
Forms of expression	Cape	17	86	9	28	29	42	27	52	21	150	461
	Cape coat	1	2	1	1	0	0	0	1	0	2	8
	Cape jacket	1	1	0	1	2	0	0	4	1	4	14
	Cape one piece, Cape dress	0	0	0	0	0	1	0	0	2	10	13

는 것은 케이프가 지닌 보온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에 사용된 총 496점의 작품 중 F/W시즌의 경우가 385점에 달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의 경우 모피, 모직, 가죽, 깃털, 니트뿐만 아니라 얇은 면직물과 레이스, 투명비닐, 시폰과 같이 비치는 소재, 실크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소재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풍부한 패션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 중에서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일반 직물을 이용

한 경우가 매 시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색의 모직물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피나 깃털을 사용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2006F/W와 2010F/W에 모피나 깃털을 소재로 한 케이프디자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모피소재를 사용한 경우 <Fig. 5>와 같이 모피 특유의 재질감과 염색, 가공기법에 따라 보온이라는 기능적 측면과 함께 독특한 장식미를 나타냈으며, 동물문양의 프린트로 모피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 다양한 니트의 조직을 통해 장식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

Fig. 1. D&G, 2006F/W.
From 2006F/W D&G. (2011). <http://www.style.com>

Fig. 2. Marc Jacobs, 2010F/W.
From 2010F/W Marc Jacobs. (2011). <http://www.style.com>

Fig. 3. Behnaz Sarafour, 2006S/S.
From 2006S/S Behnaz Sarafour. (2011). <http://www.style.com>

Fig. 4. Hussein Chalayan, 2010F/W.
From 2010F/W Hussein Chalayan. (2011). <http://www.style.com>

Fig. 5. D&G, 2009F/W.
From 2009 F/W D&G. (2011). <http://www.style.com>

Fig. 6. Oscar de la Renta, 2006F/W.
From 2006F/W Oscar de la Renta. (2011). <http://www.style.com>

는데 2006F/W에 두드러진 경향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Fig. 6>과 같이 레이스나 투명비닐, 시폰 등 비치는 소재나 가죽이나 스웨이드를 사용한 것 역시 빈도수는 낮으나 매 시즌 꾸준히 나타났다.

또 케이프디자인에 있어 장식은 장식 없이 소재 특유의 재질감을 살린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케이프 전체 또는 일부분에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으로 장식하여 장식성을 강조한 디자인도 나타났다. 다양한 니트나 프린트를 활용하여 문양의 효과나 조직의 질감을 살린 것은 매 시즌 꾸준히 나타났고, 2006F/W의 경우 다양한 콜라주나 패치워크를 통해 장식성을 강조한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식기법을 살펴보면 <Fig. 7>과 같이 모직물의 케이프 위에 꽃나무의 형상으로 콜라주하거나, <Fig. 8>과 같이 다양한 패턴의 원단을 패치워크 한 것, <Fig. 9>와 같이 화려한 코사지 장식을 콜라주 한 것 등 패치워크, 누빔, 콜라주, 브레이드로 장식한 것, <Fig. 10>과 같이 케이프 전체를 나이프 주름잡은 원단으로 사용하거나, <Fig. 11>과 같이 네크라인부분에 주름 장식을 주어 구조적인 형태미를 살린 것, <Fig. 12>와 같이 러플로 장식한 것 등 주름, 러플, 프린지, 드레이프로 장식한 것 등이 나타났으며, <Fig. 13>과 같은 그라피티나 프린트, 직물의 조직이나 니트 조직에 의한 문양을 통해 장식된 것이나, <Fig. 14>와 같이 화려하게 자수하거나 비즈로 장식한 것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케

이프디자인에 있어 장식 없이 길이의 차이나 구조적인 형태미만을 살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각 소재에 따른 질감이나 니트, 모피, 가죽 등 소재 특유의 재질감을 이용하여 장식의 효과로 나타냈고, 또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을 사용하여 수공예적인 장식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3) 형태

케이프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하나의 아이템으로 착용되기보다는 다른 의복아이템과 함께 연출되는 외투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 디자인의 형태는 다른 의복과 함께 착용되었으나 하나의 독립적인 아이템으로 나타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킷과 결합되어 케이프재킷의 형태, 케이프 드레스나 케이프원피스의 형태, 케이프코트의 형태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투의 개념을 내재한 케이프의 특성상 케이프코트로 연출된 경우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케이프재킷이나 케이프드레스, 케이프원피스의 형태 등 아이템의 결합을 통한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냈다. 특히 아이템 결합에 의한 케이프 디자인은 2010F/W 시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케이프디자인은 코트나 재킷에 케이프를 탈착할 수 있는 부착물의 개념이 아닌 아이템과 아이템의 결합으로 재탄생된 독립된 아이템으로 독특한 구조미를 나타내 새로운 디자인 발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Fig. 7. Libertine, 2009F/W.
From 2009F/W
Libertine.
(2011). <http://www.style.com>

Fig. 8. Louis Gray, 2010F/W.
From 2010F/W
Louis Gray. (2011). <http://www.style.com>

Fig. 9. Tao, 2006F/W.
From 2006F/W
Tao. (2011). <http://www.style.com>

Fig. 10. Maurizio Galante, 2008S/S.
From 2008S/S
Maurizio Galante.
(2011). <http://www.style.com>

Fig. 11. Saint Martin, 2010F/W.
From 2010F/W
Saint Martin.
(2011). <http://www.style.com>

Fig. 12. Dolce & Gabbana, 2009F/W.
From 2009F/W
Dolce & Gabbana.
(2011). <http://www.style.com>

할 수 있다.

<Fig. 15>는 의복의 구조적인 형태를 응용해 마치 재킷을 착용한 것과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눈속임 효과를 통해 나타난 케이프재킷이고, <Fig. 16>은 전형적인 케이프코트의 형태를 나타낸다. 또 <Fig. 17>은 케이프의 형태와 슬릿을 원피스와 결합해 배럴 실루엣의 케이프원피스 형태로 나타났으며, <Fig. 18> 역시 원피스와 결합된 케이프원피스의 형태로 바닥까지 끌리는 긴 길이로 인해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케이프 단독

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 한쪽 어깨에만 둘러 연출되거나, 긴 길이와 거대한 볼륨으로 몸 전체에 둘러 솔과 같은 형태로 착용되기도 하여 케이프의 길이와 볼륨에 따라 착용한 사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나타냈다.

2.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의 특성

최근 5년간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을 고찰한 결과 과거 복식사를 통해 나타난 케이프디자인

Fig. 13. Vivienne Westwood, 2007S/S.
From 2007S/S
Vivienne Westwood.
(2011). <http://www.style.com>

Fig. 14. Christian Lacroix, 2009F/W.
From 2009F/W
Christian Lacroix.
(2011). <http://www.style.com>

Fig. 15. Marc Jacobs, 2008S/S.
From 2008S/S
Marc Jacobs.
(2011). <http://www.style.com>

Fig. 16. Kinder Aggugini, 2010F/W.
From 2010F/W
Kinder Aggugini.
(2011). <http://www.style.com>

Fig. 17. Valentino, 2008F/W.
From 2008F/W
Valentino.
(2011). <http://www.style.com>

Fig. 18. Rolland, 2010F/W.
From 2010F/W
Rolland. (2011). <http://www.style.com>

과는 다르게 소재나 장식의 다양한 표현기법, 코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과의 결합 등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과거 케이프가 지닌 가치는 실용성과 장식성, 신분에 대한 권위성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케이프디자인이 표현하고 있는 특성은 과거 케이프가 지닌 특성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보온이라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작용은 과거와 현재 모두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나 현대패션의 독특한 개성연출과 함께 조화되어 패션성과 조화를 이루며 나타났고, 장식적인 측면 역시 보다 다양해진 소재와 표현기법을 통해 단조로움 대신 화려한 장식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분에 대한 권위성의 표출 역시 계급의 상하구별이라는 계급론적 의미를 벗어나 현대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강인한 여성상을 나타내는 권위적인 이미지나 여성의 우아함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전환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복식사적 고찰을 통해 나타난 케이프의 특성과 최근 5년간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의 분석을 근거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의 특성을 우아성, 실용과 패션성의 조화, 권위성, 장식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여성적인 우아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아는 라틴어로 그라티아(Gratia)라하며, Schelling은 ‘최고의 온유함과 모든 힘의 평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

고, 르네상스시대에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우며 강요되지 않은 행동과 외모로 간주하기도 하였다(Kim, 2004). 우아미의 기본적인 특색은 형태의 세밀함이며 유연하고 자유로운 곡선으로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Ahn and Lee(2009)는 우아미의 미적 가치를 고급소재, 단정하고 정숙하여 격식에 어울리는 품위성, 도회적이며 섬세하고 기교의 성숙함이 있는 세련성, 감미로운 매력이 있는 여성성, 그리고 복식 내에서 각 부분들이 상호유기적인 통일성을 지닌 조화성이라 하기도 하였다.

즉 의복이 갖는 우아성이란 여성미와 세련미를 부여함으로써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하는 관능적인 스타일뿐만 아니라 보다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로 남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적 특질을 강조하게 된다. 넓게 퍼지며 텐트 실루엣을 형성하는 케이프의 독특한 형태는 몸에 피트 되는 실루엣으로 여성인체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아한 이미지를 갖게 한다. <Fig. 19>와 같이 아무런 장식 없이 모던하게 표현된 실크소재 케이프는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Fig. 20>과 같이 드레스와 함께 연출된 케이프 역시 여성 인체를 감싸 흐르는 듯한 소재와 유연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이미지로 우아한 자태를 나타냈다. 또 <Fig. 21>과 같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연결되는 베일형태의 케이프 드레스는 정숙하고 품위 있는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실크나 시폰 등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소재, 무릎선이나 바닥까지 끌리는

Fig. 19. Yves Saint Laurent, 2010F/W.
From 2010F/W Yves Saint Laurent. (2011). <http://www.style.com>

Fig. 20. Halston, 2008F/W.
From 2008F/W Halston. (2011). <http://www.style.com>

Fig. 21. Alexis Mabilie, 2010S/S.
From 2010S/S Alexis Mabilie. (2011). <http://www.style.com>

Fig. 22. Martin Margiela, 2009F/W.
From 2009F/W Martin Margiela. (2011). <http://www.style.com>

Fig. 23. Aquascutum, 2010F/W.
From 2010F/W Aquascutum. (2011). <http://www.style.com>

긴 길이, 문양이나 장식 없이 소재의 특성과 단색만으로 케이프 자체의 형태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권위와는 다른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둘째, 실용과 패션성의 조화이다. 인류의 복식착용에 관한 기원 중 하나는 신체 보호설로 춥거나 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나 곤충이나 자연의 위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의미에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이프의 착용은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에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한 것으로 과거와 현재 모두 보온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이 중시되며, S/S시즌보다 F/W시즌에 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케이프에 사용되는 주 소재 역시 모직물이나 모피로 다른 어떤 소재보다 뛰어난 보온성을 지니고 있어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패션의 경향은 단순히 옷을 입는 다기보다 패션을 입는다고 할 만큼 새로운 조형미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이템의 결합과 해체, 경계의 탈피를 통해 보다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있고, 기능과 실용적인 측면이 중시되는 아이템에서조차 패션성을 부각시켜 차별화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케이프는 단독으로 착용되기보다 다른 의복 위에 외투의 개념으로 착용되어 기후의 변화나 상황에 따라 착용과 탈의에 용이하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 각자의 연출방법에 따라 다양한 패션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면서도 패션성을 추구할 수 있다 하겠다.

또 최근 패션컬렉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케이프디자인의 경우 에스닉 스타일의 이미지를 벗어나 간결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다양한 아이템에 접목하여 <Fig. 22>와 같이 대담한 커팅으로 파워풀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Fig. 23>과 같이 케이프의 형태를 파괴하여 구조적인 조형미를 살린 것, <Fig. 24>와 같이 벨트와 함께 허리를 강조하여 여성적인 실루엣을 강조시킨 것, <Fig. 25>와 같이 스포티한 이미지로 해석된 케이프 등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케이프가 지닌 실용성의 가치는 보온이라는 일차적 측면을 넘어 패션성과 결합함으로써 독특한 조형미와 다채로운 패션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셋째, 권위성의 표현이다.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의미한다(“Authority”, 2010). 이러한 권위성은 복식에 있어 인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연스러운 형태미를

비례와 조화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달리 신체 확장의 의미로서 복식으로 과장되게 장식함으로써 인간의 위엄, 지위 등을 과시하는(Kim, 2004) 숭고미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과거 케이프가 왕실이나 귀족들에 대한 신분의 표시나 위엄의 상징으로 착용되었던 것과 같이 거대하고 웅장한 형태, 화려한 장식의 케이프디자인은 과장되고 확대된 복식의 형태로 권위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패션에서 보다 확장되고 왜곡된 형태의 케이프디자인을 통해 권위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어깨에서 소매에 이르기까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케이프의 실루엣은 짧은 길이의 케이프보다 긴 길이로 표현될 경우 우아함과 위엄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Fig. 18>과 같이 길이를 통한 수직적 강조뿐만 아니라 <Fig. 26>과 같이 거대한 볼륨을 통한 면적의 강조, <Fig. 27>과 같이 어깨선을 부각시켜 남성적인 힘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케이프형태에서 탈피하여 과장과 확대의 방식으로 권위성의 가치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Kindlon이 현대사회에 새로운 사회계층이자 새로운 여자의 탄생이라고 주창한 알파 걸(Alpha Girl)의 등장(Kindlon, 2006)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 남성과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대신 여성의 특성을 당당히 요구하고 이를 적극 소비하는 알파 걸은 여성 패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여성들의 자기에 성향과 자신감의 표출을 나타내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케이프디자인에 있어 우아한 여성성이나 실용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길이나 면적의 확대, 어깨선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나타나 과거와는 다른 파워풀한 현대여성의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식성의 표현을 나타냈다. 장식은 인간의 미적 표현 본능의 하나로 복식에 있어서는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케이프디자인에 있어 단순히 단색의 직물을 이용하여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앞서 고찰한 현대패션에 나타나 케이프디자인의 경향 중 소재와 장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질감의 소재 사용, 그리고 자수나 비즈 장식, 부분적인 콜라주, <Fig. 28>과 같이 케이프 전면에 코사지를 콜라주하여 부조적인 재질감을 살린 것, 패치워크 등은 수공예적인 장식성의 가치를 나타낸다.

과거 케이프디자인이 단순한 모피트리밍이나 자수, 태슬, 보석 장식 등을 통해 장식성을 표현했다면 오늘

Fig. 24. Cerruti, 2010F/W.
From 2010F/W
Cerruti. (2011).
<http://www.style.com>

Fig. 25. Y-3, 2010F/W.
From 2010F/W
Y-3. (2011). <http://www.style.com>

Fig. 26. Victor & Rolf, 2010F/W.
From 2010F/W
Victor & Rolf. (2011).
<http://www.style.com>

Fig. 27. Martin Margiela, 2007F/W.
From 2007F/W
Martin Margiela. (2011). <http://www.style.com>

Fig. 28. Chanel, 2010S/S.
From 2010S/S
Chanel. (2011).
<http://www.style.com>

Fig. 29. Yves Saint Laurent, 2006F/W.
From 2006F/W
Yves Saint Laurent. (2011).
<http://www.style.com>

날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은 보다 다양한 표현기법과 소재의 질감, 문양을 통해 장식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케이프디자인 전체나 일부분에 트리밍으로 자주 사용되는 모피나 깃털의 경우 다양한 동물의 종류에 따른 재질과 문양, 염색, 가공기술에 의한 독특한 표면효과 등으로 케이프형태에 변화 없이 그 재질만으로도 장식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니트 소재 역시 <Fig. 29>와 같이 조직이나 짜임에 의해 니트 특유의 장식성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원형, 반원형, 사각형 등 한 장의 천으로 구성되어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는 케이프디자인 외에 주름이나, 드레이프, 러플 등 기교적인 디테일을 부가하여 장식적인 조형미를 부각시켰다.

IV. 결 론

케이프는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에 게 두루 입혀지며 방한을 위한 실용적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정관념의 탈피와 독특한 개성연출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에 있어 케이프는 실용적인 아이템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와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의 형태적 변화와 경향을 살펴보고 케이프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함께 2006S/S부터 2010F/W까지 최근 5년 동안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

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칼라의 유무에서는 후드를 포함하여 칼라가 달린 경우가 더 많았으며, 길이는 힌선 길이나 무릎선 길이의 긴 케이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소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직물이나 모피, 니트 외에도 가죽, 깃털, 얇은 면직물과 레이스, 투명비닐, 시폰과 같이 비치는 소재, 실크 등 다양한 소재로 나타났으며, 일반 직물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식은 장식 없이 소재 특유의 재질감이나 길이의 차이, 구조적인 형태미만으로 표현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케이프 전체 또는 일부분에 주름, 러플, 드레이프, 패치워크, 누빔, 콜라주, 브레이드, 자수, 비즈 장식, 프린트 등으로 장식한 경우도 나타났다. 케이프 디자인의 형태는 다른 의복과 함께 착용되었으나 하나의 독립적인 아이템으로 나타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케이프재킷, 케이프드레스나 케이프원피스, 케이프코트 등 다른 의복아이템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 경향을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케이프디자인의 특성은 첫째, 여성적인 우아미의 표현이다. 실크나 시폰 등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소재, 무릎선이나 바닥까지 끌리는 긴 길이, 문양이나 장식 없이 소재의 특성과 단색만으로 케이프 자체의 형태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둘째, 실용적 가치와 패션성의 조화를 나타냈다. 케이프의 착용은 무엇보다도 보온이라

는 실용적인 가치를 나타내지만, 아이템과 이미지의 결합, 고정관념을 탈피한 형태의 해체와 재해석, 자유로운 연출방법 등을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개성적인 패션 스타일을 나타냈다. 셋째, 권위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부드럽고 유동적인 케이프의 실루엣은 긴 길이와 거대한 볼륨감, 어깨선을 인위적으로 부각시키는 형태로 전환되어 수동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아닌 남성과 동등하고 역동적인 현대여성의 파워를 반영하는 권위성의 가치를 표현하였다. 넷째, 장식성의 표현이다. 블랙이나 화이트, 그레이 등 무채색이나 어두운 브라운 등 단색의 직물과 아무런 장식 없이 단순한 디자인으로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화려한 색상과 모피나 니트 등 다양한 질감의 소재 사용, 그리고 자수나 비즈 장식, 콜라주, 패치워크 등 수공예적인 장식, 주름이나, 드레이프, 러플 등 기교적인 디테일을 부가하여 화려하고 장식적인 조형미를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어깨에 두르는 것만으로도 개성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케이프는 다양한 길이와 소재, 장식, 아이템의 결합과 해체를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보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현 시대의 미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현대패션이 지향하는 재창조와 새로움에 대한 요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패션디자인 발상과 전개에 있어서도 여러 의복아이템의 특징을 살려 기능과 실용, 패션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고부가가치 디자인으로 상품화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S. H., & Lee, M. H. (2009). A study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rapery costum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7(3), 396-406.
- Anderson, B. J., & Madge, G. (1997). *A history of fashion 1* (G. S. Yoon, Trans.). Seoul: Jajaknamu.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Authority. (2010, October 25). *Daum dictionary*. Retrieved October 25, 2010, from <http://enc.daum.net/dic100>
- Chung, H. S. (1997). *A history of fashion*. Seoul: Kyomunsa.
- Fashion dictionary editorial committee. (1999). *Fashion dictionary*. Seoul: Kyomunsa.
- Kim, M. J. (2004). *Teaching of fashion aesthetics 1*. Seoul: Kyomunsa.
- Kim, M. J., Choi, H. S., Kim, Y. H., Ha, J. S., Choi, S. H., & Ko, H. J. (2010). *Western fashion multi-content*. Seoul: Kyomunsa.
- Kindlon, D. (2006). *Alpha girl*. New York: Rodale.
- Rasara educational development. (1992). *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fashion*. Seoul: Rasara Publishing Co.
- Shin, S. O. (2006).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Seoul: Soohaksa.
- Tortora, P., & Eubank, K. (1995).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 2006F/W D&G.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6RTW-DG>
- 2006F/W Oscar de la Renta.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6RTW-ODLRENTA>
- 2006F/W Tao.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6RTW-TAO>
- 2006F/W Yves Saint Laurent.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6RTW-YSLRG>
- 2006S/S Behnaz Sarafour.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2006RTW-BNAZSRPR>
- 2007F/W Martin Margiela.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10RTW-MMARGIEL/>
- 2007S/S Vivienne Westwood.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7RTW-VWESTWOOD>
- 2008F/W Halston.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8RTW-HALSTON>
- 2008F/W Valentino.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8RTW-VALENTIN>
- 2008S/S Marc Jacobs.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2008RTW-MJACOBS>
- 2008S/S Maurizio Galante.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2008RTW-MGALANTE>
- 2009F/W Christian Lacroix.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CLACROIX>
- 2009F/W D&G.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DG>
- 2009F/W Dolce & Gabbana.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DGABBANA>

- 2009F/W Libertine.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LIBERTINE>
- 2009F/W Martin Margiela.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MMARGIEL/>
- 2010F/W Aquascutum.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AQUA>
- 2010F/W Cerruti.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CERRUTI/>
- 2010F/W Hussein Chalayan.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HCHALAYAN>
- 2010F/W Kinder Aggugini.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KAGGUGINI>
- 2010F/W Louis Gray.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LGRAY>
- 2010F/W Marc Jacobs.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MJACOBS>
- 2010F/W Rolland.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10RTW-RMOURET>
- 2010F/W Saint Martin.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ROLLAND>
- 2010F/W Victor & Rolf.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VIKROLF>
- 2010F/W Yves Saint Laurent.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09RTW-YSLRG>
- 2010F/W Y-3.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10RTW-YYADIDAS>
- 2010S/S Alexis Mabille.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10RTW-AMABILLE>
- 2010S/S Chanel. (2011, July 5). *Style.com*. Retrieved July 5, 2011,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2010RTW-CHANEL>